



# 함께 나서라

# 하버드 강의 때 빌 게이츠에게 A학점 줬



두 사람은 글로벌 경제 현안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테러 사태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 마이클 스펠스 뉴욕대 석좌교수 경제학에 '시장 신호' 개념 첫 도입 29세 때 논문으로 29년 뒤 노벨상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선택해야. 또 우리가 잘 모르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펠스(72) 뉴욕대 경제경영학 석좌교수의 조언이다. 사공인 본사 고문이 "짧고 열정적인 경제학자나 확신이 많다. 다들 노벨상을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하자 한 얘기였다.

대답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했다. 이탈리아인 부인을 둔 그가 강의 시즌이 아닐 땐 밀라노에 머물기 때문이다. 자택 인근 호텔에서 만난 그는 "연구 팀도 했다. '세계화를 일종의 비자(bazaar-시장) 거리'로 여기는 데 나예전 점자 네트워크처럼 보인다.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플랫폼도 놓여간다. 시장 크기도 확장되고 있다. 포괄적 측면도 있고... 그 실상을 포착할 수 있다면 전경 경제학의 토대를 재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더했다. "오래된 거대 논쟁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 잊어라. 누가 50, 60대의 거시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신경 쓰겠나. 그들은 오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대들끼리 그냥 하게 되라".  
그 자신은 노벨상 수상을 기대했을까. 여느 노벨상 수상자처럼 그 역시 "예상 밖"이란 답을 했다. 그대겐 그럴 법한 이유가 있다. 학자로서 한창 매진할 나이인 41세에 하버드대 문리대학장이 됐다. 대학 행정으로 빠진 셈이다. 전임자이자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이기도 한 헨리 로소브스키는 당시 "당신이 이 일을 맡으면 노벨상은 결코 못 받을 것"이란 얘기를 했다고 한다. 스펠스 교수도 "나는 (연구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노벨상은 폴 새뮤얼슨(1970년 수상)이나 케네스 애로우(72년), 안 톰베르텐(69년 초대 수상자)과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새뮤얼슨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로는 이론 경제학과 후생 경제학에 대한 독창적 연구로 이를 높였다. 톰베르텐은 경제동학과 경제분

석을 발전시켰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시장 신호'가 결과적으로 그를 노벨상으로 이끌었다. 노벨상을 받게 된 1973년 논문은 한 해 전인 72년 하버드대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쓰였다. 그는 경제학에 신화학 개념을 처음 도입한 학자다. 시장 신호 이론은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한 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에 그 사람이 표출하는 행동, 즉 신호에 따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펠스 교수는 43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으며 프린스턴대(철학)와 영국 옥스퍼드대(수학)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했다. 강단은 하버드대에서부터 썼다. 그 무렵 그의 대학원 이론 과정을 학부생 두 명이 들었는데 마이클로스퍼트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였다. 둘 다 A를 받았다고 한다.  
2010년부터 뉴욕대 스텐경영대학원 교수직으로 합류했다. 지금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글을 쓰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의 온라인 토론장인 '포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주요 필진이다.  
밀라노=코강영 특파원  
cookham@joongang.co.kr

## A. Michael Spence

마이클 스펠스(1943년 미 뉴저지주 출생) / 뉴욕대(NYU) 교수 / 스텐경대 비드니스쿨 학장 /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1973년 논문 '노출시장 신호' 발표 / 하버드대(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수학 석사) / 스텐경대(철학 학사)

▶사공=당신은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중국 정부와 고위층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가.  
▶스펠스=크게 봐서 나는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중국은 다른 신흥국과 견줘 근본적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능력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 공직자의 충성심, 높은 교육열, 실용주의, 전략적 사고 등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가 브라질 등 다른 신흥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도 들 수 있다.  
▶사공=현재 중국은 공공투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가 지나치게 많이 고민하는 실정이다.  
▶스펠스=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중국이 2009년에 뉴딜을 선언하고 정책조정점을 해야 했다. 5년 전에 그렇게 조언한 적이 있다.

▶사공=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보나.  
▶스펠스=중국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서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정치체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중국 정치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이 외국의 성공사례를 배우려는 태도가 높았는데 현 리더십하에선 좀 바뀐 듯하다. '서양 교과는 필요 없다'는 식이다. 또한 정부 통제 성향이 높아지고 반개방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사공=중국을 2000여 년간 지속된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익숙해 있다. 요즘 그런 과거의 영향을 되찾으려는 생각이 중국인 사이에 퍼져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중국 국민과 리더들은 실용주의적이기 때문에 외부 여건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고 타

협에 나갈 것으로 본다.  
▶스펠스=중국의 공공 부문은 아주 거대하다. 이런 공공 부문 개혁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다. 앞으로 중국의 공공 부문 개혁과 민영화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다.  
▶사공=나는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시장경쟁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축통화가 되면 자본계정과 금융 부분의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중국 정책당국이 1980년대 한국의 자본계정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5개년 계획과 같은 순차적 계획을 미리 발표해 추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스펠스=좋은 충고다.  
▶사공=한국은 중국보다 조금 일찍 시장 개방, 특히 금융과 자본 시장을 개방해 성

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다. 이런 한국 사례가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제 당신이 세계 경제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해 보자. 당신은 최근 저서에서 세계 경제의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봤다. 인류의 75% 정도가 급세기 중반에는 있는 오늘날의 고소득 국가 국민의 생활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단 신흥국 정책 담당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펴고 적절한 국제협력과 정책협조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말이다.  
▶스펠스=맞다.  
▶사공=나도 세계 경제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다만 현재 국제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된다. 세계가 거의 무극상태(No Polarity)하에서 주요 20개국(G20)이라도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딱하게 여긴다.

▶스펠스=전적으로 동의이다. G20은 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공=필요로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충고를 해주길 바란다. 노벨상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스펠스=없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놀랐게 생각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가장 기억할 수 있는 분야는 당신이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끼지만 아직 이해가 잘되지 않은 분야"라고 강조한다. 나는 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분야라고 본다. 모두가 세계화를 얘기하지만 세계화는 미치고 보면 네트워크화다. (젊은이들이) 50~60대 경제학자들의 말에 매몰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라 충고하고 싶다.  
▶사공=강남규 기자  
disma@joongang.co.kr

전남 구례에는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자본 참여로 만든 자연드림파크가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이며, 약 400개의 청년 일자리로 농촌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구례와 괴산의 자연드림파크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아이쿱생협의 꿈이 실현된 열매입니다.  
외형적 성장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해결하고 싶은 조합원의 열망을 담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입니다. 시사저널이 말하는 '활발'이 아닙니다.

**23만여 아이쿱생협 조합원을 대표한 1,043명의 조합원은 1만원씩의 소송비를 모아서 시사저널에 책임을 묻는 명예훼손 소송에 지지와 지원을 보냅니다.**  
아이쿱생협은 시사저널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사과와 정보보도를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아이쿱생협은 1988년 창립 이래로 '협동'의 가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시사저널의 보도는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지지와 지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조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조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